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친미·반미 경향성에 대한 연구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문제 보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Political Tendencies about Pro-America and
Anti-America of Conservative and Liberal Newspapers : focused on
reports about abuse on Iraqi prisoners by the American military

손의식, 황유선 (방송영상과)

Eui-Sik Sohn, Yoo-Sun Hwang (Dept. of Film, Video & Broadcasting)

Key Words : conservative, liberal, pro-America, anti-America, newspaper

Abstract : Newspapers have their own political tendencies and express different comments even on the same fact. A fact is reflected and treated by different tones to generate diverse public opinions. Ideological controversies arise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newspapers, in Korea, when it comes to the issues on the America. Framing concept was adopted to analyze the tones of reports in conservative and liberal newspapers. The articles and editorials were categorized by the sphere of consensus, the 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 and the sphere of deviance borrowing the theory of Daniel Hallin (1986). All the articles and editorials were selected by each newspaper's website. Conservative newspaper maintained more objective view about American military's abuse on Iraqi prisoners focusing on the fact itself, while liberal newspaper showed critical view dealing with wider range of cases and detailed explanations. In the 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 conservative newspaper considered the abuse as a partial and individual dimension, however liberal newspaper pointed that the abuse was the result of the fundamental immorality of the America. Conservative newspaper was found to have pro-America tendency and liberal newspaper have anti-America tendency.

1. 머리말

미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존재는 과거와 같지 않으며, 양국 간에도 적잖은 갈등의 요소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 갈등은 대부분 '정치 헤게모니' 다툼에 기인된다. 이로 인해 친미와 반미 성향으로 분리되며, 언론사의 보도 성향 역시 친미적인 성향과 반미적인 성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는 언론사마다의 경향성과 고유의 논조에 따라 다르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 언론사의 이념적 경향성에 따른 상황별 보도의 차이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엇갈린 보도행위와 이로 빚어진 여론 형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적잖은 연구에서 여론조작과 왜곡보도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보도를 통한 언론의 권력남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

노암 촘스키(Norm Chomsky, 1979)는 언론의 권력남용과 보도를 통한 암묵적인 독재 현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이를 ‘필요한 환상(necessary illusion)²⁾’, ‘만들어진 동의(manufacturing consent)’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하여 여론 형성과 나아가서는 여론 조작이 가능하며, 왜곡보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미디어 수용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내용의 범주 안에 대해서만 사고의 범위가 정해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경우 각 언론사별로 진보, 중도, 보수의 논조가 드러나 있다.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적합한 논조가 중점적으로 미디어 수용자에게 전달되며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언론의 뉴스보도나 해설기사를 통해 정부정책에 관한 기본정보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에 관한 견해나 태도를 형성한다. 개인들의 정책에 대한 견해의 집합은 여론의 형태로 미디어 보도를 통해 나타나며, 이는 다시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홍원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수언론의 만들어진 동의’와 ‘진보언론의 만들어진 동의’가 존재하며 이는 극명히 대립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어떠한 시각과 논조로 보도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프레임 분석을 얻고자 한다. 분석의 소재로서 이라크 사태를 설정했다. 즉 미군들의 이라크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어떠한 만들어진 동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도하는가를 기사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연구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미국 주도하에 발생한 동일한 현상을 두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언론사별 반응을

1) 이 연구는 특정 매체의 논조와 보도에 대한 비판 이데올로기의 분석이 아니라, 단일한 민족구성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양립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상극적 매체를 고찰하며, 뉴스 프레임(News Frame)의 관점에서 ‘보도 경향성’을 비교 연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친미·반미를 합리화하기 위한 여론조작, 왜곡보도 등의 문제와 언론의 권력남용 등은 이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2) 촘스키는 언론들이 ‘동의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국민의 여론으로 둔갑시키고, ‘필요한 환상’(necessary illusion)을 만들어낸다고 자신의 저서(*Necessary illusion: Thought control in democratic societies*, 1979)에서 비판한 바 있다. 촘스키는 이런 행위 속에는 편향적인 보도 관습으로 깔려 있고 이 뒤에는 미국의 언론을 지배하는 상류층 엘리트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ABC NBC 등의 미국 주류 미디어들은 모두 대기업 소유이고, 거대 광고주의 영향을 받으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히 봉사한다. 따라서 대자본 소유의 언론들의 의견을 국민의 의견처럼 바꾸어 놓으며 때때로 ‘필요한 환상’을 붙여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통해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각각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논의

2. 1. 한국 언론의 이념적 차이

한국의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정당과 신문의 상관관계로도 견주어 볼 수 있는데, 이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 사이, 그리고 민주당·한겨레신문·정부소유의 언론기관들 사이에 서로 협력하고 논조를 같이 하는 관계가 굳건히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개념(윤영철 2000)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매체는 조선일보, 진보를 대표하는 매체는 한겨레신문으로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계층에서는 조선일보를 옹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득권 계층이 아닌 소외 계층이거나 젊고 진보적인 성향의 계층에서는 한겨레신문의 논조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심지어 ‘안티조선’이라는 그룹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 계층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념적 분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행태도 상이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자율적이라는 다원주의적 규범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사회 조직들 간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국가에 의해 조정되어 왔으며(윤영철 2000), 언론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 출범 후에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언론시장에서의 과당경쟁은 상업주의와 선정주의의 폐해를 낳았고 결국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박홍원 2001). 우리나라 신문에서 보도이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사안은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윤영철 2000), 남북관계는 결국 그 역사적인 뿌리를 한국과 미국과의 상생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 대한 사안은 이념적인 대립이 심화되어 정치적 경제적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관련 사안을 두고 신문의 보도이념이 다르게 표출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객관적 보도의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문의 정파적 보도성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이런 현상은 상업주의 성향이 강한 신문들보다 정당언론의 전통이 남아 있는 유럽신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윤영철 2000).

보수주의 논조를 유지해 온 조선일보³⁾는 북한관련 보도에 대해서 강경한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1997년 6월 24일자 사설을 통해서도 “김

정일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성 없는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는 강한 논조를 피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북한은 같은 해 6월 27일 평양방송을 통해서 “조선일보는 사실에서 우리의 존엄 높은 정치체제를 악질적으로 증상모독했다.”면서 “조선일보사에 무자비한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비추고 이어 조선일보 기자의 방북 취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조선일보 사사편찬실 2004). 이와 같은 조선일보와 북한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국제언론인협회(IPJ)는 같은 해 6월 30일, “북한의 협박보도는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서 강력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조선일보의 논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내·외부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내부적으로 조선일보는 극좌와 극우를 배격하고 온건과 합리에 바탕을 둔 중도 우파, 또는 안정 속의 개혁이라는 중도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보다는 다소 극우,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조선일보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5%가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보수적이다.”(강준만 1999)고 규정짓고 있다.

또한 강준만(1999)은 조선일보의 이념이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타임즈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유력지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조선일보와 워싱턴 타임즈가 성향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조선일보의 취재원 구성은 다른 신문에 비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정부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여타 신문에 비해 가장 낮다(한국언론재단 2001). 이 또한 조선일보를 다른 신문과 구별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진보언론의 대표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⁴⁾은 조선일보와는 다소 다른 맥락에서 이해된다. 1960년대 중반부터 경제발전으로 독점자본이 발전하며 매체의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언론시장은 소수의 거대 언론사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언론이 창간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한국의 경우, 상당수의 진보적 중간계급 성원이 존재하고 있었다(한동섭 2000). 이

3) 보수언론의 상징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조선일보의 태생은 일제 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 3월 5일 조선일보의 창간이 이뤄졌으며 1919년 3·1 운동의 감격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단 신문의 창간은 당시 민중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조선일보는 밝히고 있다(조선일보 사사편찬실 2004). 조선일보는 그 역사가 긴 만큼 인고의 세월도 겪었음은 당연하다. 일제시대부터 모두 네 차례의 정간 조치(조선일보 사사편찬실 2004)를 당했음에도 논조는 변함없이 동일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그 성향은 일관된 보수주의이다.

4) 언론과동 때 해직된 기자들을 중심으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은 1988년 2월부터 2만 7223명이 출연한 50억원의 기금으로 조성되어 그해 5월 15일 창간호 50만부를 발행했다(한겨레신문 2004). 또 종합일간지로는 최초로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를 실시하는 등 당시의 기성 언론매체와 견주어 볼 때 진보적인 면모를 보였다.

처럼 적지 않은 중간 진보성향의 계급과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한겨레신문이 진입장벽을 뚫고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다. 또 기존 언론에 대한 소유구조와 정치적인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신생 진보언론의 탄생을 더욱 갈구하게 만들었다.

한겨레신문의 논조 흐름은 위에 언급된 조선일보의 차별화된 논조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상당히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해를 불문하고 노동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논조가 압도적이다. 한동섭(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겨레신문은 진보 언론으로서의 기초를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문의 이미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진보적 기사 점유율을 보면 1988년 93.33%에 이르던 것이 1990년에는 62.50%에 머물렀다. 탈정치적 기사들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988년에는 1일 평균 1246.93칼럼 Cm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2207.16칼럼 Cm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겨레신문의 초기에는 1면 머리기사의 논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 탈정치적 기사를 증가시킴으로써 시장과 부분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진보 언론으로서의 기초에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보수와 진보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꾸준한 논조를 유지하는 것은 신문사의 설립 이념에 부합하고 신문사 고유의 특징을 규정 지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경제적인 원리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한동섭(2000)에 의하면 광고주가 미디어를 선정할 때 가장 큰 관심을 쏟는 것은 매체별 수용자의 규모와 그들의 인구 지정학적 특성이다. 광고주들은 대개의 경우 수용자의 규모가 큰 매체를 선호한다. 이러한 매체를 이용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는 사회 각 부분의 상이한 이해와 취향을 반영하기 보다는 대중들을 가능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공통적 관심사와 취향에 집중하게 된다.

경제적 논리와 힘은 기사의 수정·삭제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일종의 사회적 권력으로 자리매김한다. 광고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매체는 권력에 일정 수준 타협해가며 생존의 길을 열어 가지만 진보언론은 이들을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진보 언론들은 판매수입과 기부금 등에 의존하면서 광고를 거부하고 있다(한동섭 2000). 언론이 민주적이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를 소유권의 유지와 경제적인 의존성에서 찾을 수 있다면 소유권을 대중에게 분산시키고 수익 구조를 변화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보도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2.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

뉴스 프레임(News Frame)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학자는 Goffman(1974)이다. 그는 저서인 'Frame Analysis'에서 Bateson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프레임이라는 의미를 언급하였고 해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오늘날에는 프레임의 의미가 점점 세분화되고 프레임을 주제로 연구·분석을 실시한 논문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널리즘 분야의 프레임 연구는 뉴스내용의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연구의 한 조류로 등장했다. 1970년대 이후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뉴스의 가치, 뉴스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뉴스의 편파성, 특정 집단을 옹호하거나 억압하는 장치, 등장인물을 형상화하는 방식, 사건의 개요를 전달하는 구조 등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다. 뉴스의 내용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뉴스 텍스트가 생산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 분야이다. 그중에서도 뉴스 프레임의 이데올로기적 구성에 대한 연구는 결국 뉴스 텍스트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연구로 발전된다. 텍스트 분석적인 접근(the text analysis approach)은 주로 뉴스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적 구성과 뉴스주제의 제시방식이 이슈와 문화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이준웅 2000). 같은 현상을 두고도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의 보도가 가능한 것이 바로 텍스트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프레임 연구의 중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Gitlin(1980)은 뉴스 프레임을 구성하는 현실은 특정한 관점이나 해석을 옹호하거나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공된 현실이라고 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볼 때, 뉴스 보도를 통해 상이한 현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로 뉴스 텍스트에서 특정 부분을 확대하거나 강조하여 각기 언론사별로 논조에 맞는 현실을 구성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미디어가 사회적인 사건들을 뉴스화하며 구성해가는 일관된 방법이다.

한편, 프레임과 비슷한 개념으로 의제설정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의제설정은 뉴스미디어가 뉴스 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수용자들의 현실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디어가 뉴스를 선택하는 패턴은 어떤 특정이슈를 회상하는 것을 다른 이슈를 회상하는 것보다 더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정치적 이슈에 내리는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프레임은 미디어가 정책 이슈를 제시하고 조직하는 방식이 수용자들이 이 이슈를 지각

5) 뉴스 보도의 이상향은 '객관성'이다. 그러나 뉴스는 다양한 요인과 내·외적 통제에 의해 일정한 편향성을 띠게 된다. 이처럼 뉴스 보도가 어떤 측면을 선택, 강조하거나 배제하면서 특정한 편향을 가지는 것을 '뉴스 프레임'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어빙 고프만의 저서(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에서 개념이 정립되었다.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박홍원 2001)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뉴스 프레임을 연구하는 것과 헤게모니의 개념은 미디어와 국가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헤게모니와 프레임의 개념을 조합하면 뉴스를 다양한 문화적 세력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박홍원 2001). 보수적 신문과 진보적 신문 사이에서 보이는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한국가 내에서 미디어가 여론형성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국가 내의 이념적인 갈등이 표출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3. 미디어의 공정보도

미디어는 흔히 ‘제 4부(the fourth estate)’⁶⁾로 일컬어질 만큼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미디어의 공정한 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aniel Hallin(1986)의 이론에 의하면 언론의 영역에 대해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합의의 영역(sphere of consensus)’은 뉴스의 편파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며 ‘논의의 영역(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은 처음에는 합의의 영역에 놓여 있을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논쟁의 영역으로 옮겨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치적 분위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 영역에서는 공정보도와 뉴스의 밸런스가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혹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동의를 이룰 수 없는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만 이해하게 되는 영역이자 미디어간의 논조의 차이가 의미를 갖지 않는 ‘일탈의 영역(sphere of deviance)’이 있다. 결국,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론사별로 보이고 있는 논조를 Hallin이 제시한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그 사안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기사가 언론사간의 합의의 영역에 포함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논의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 부분은 언론사 별로 논조가 극명히 갈리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보도가 객관성을 표방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공정하고 지극히 객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취재원과 취

6) ‘the fourth estate’는 서구 봉건제의 세 계급(승려·귀족·평민)과 견주어 언론을 제 4계급이라고 지칭한 함으로써 정립된 개념이다. 이는 1837년 매콜리경이 의회의 기자석을 가리켜 신문 본래의 사명은 전제적 경향을 띠는 정치에 대한 하나의 위협이어야 한다고 한 데에서 유래한다. 오늘날은 언론이 입법·사법·행정과 나란히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흔히 제 4부 또는 제 4권력이라고도 지칭한다.

재자 사이의 인간적, 상황적 관계가 늘 존재하여 이는 기사작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와 국가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행정관료들과 언론인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인적 관계, 언론보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취재원으로서의 정부기관과 매체사 사이의 취재관행, 정책홍보창구로서의 매체의 유용성 증대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전략, 정부관료들이 기자들 혹은 언론의 정책보도에 관해 갖고 있는 태도, 기자들이 정부 관료나 정책입안자 혹은 정책집행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한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박홍원 2001)로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미디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관계를 두고 감시견(watch dog), 보호견(guard dog), 애완견(lap dog), 공격견(attack dog)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객관주의자들은 절대적 진실이 있으며 이를 전달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미디어를 비판하고 있다. Lichtenberg(1996)는 객관주의에 대한 세 가지 비판 중에서 언론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디어 역시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불공정 보도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언론사의 외적 영향으로 언론사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도국의 간부, 경영진의 간섭에 의한 불공정 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내적 요인으로는 일선 기자들의 취재관습과 기자정신을 들 수 있다. 취재원의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는 취재관습과 사실확인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오보 등은 우리나라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판적 기자정신의 소멸과 간부들의 보신주의 혹은 언론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입신출세주의도 불공정 보도의 원인(저널리즘 비평 1997)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지식인으로 일컬어지는 노암 촘스키는 언론의 공정하지 못한 보도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쉬지 않아왔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주류언론과 지식인의 유착에 대해서 비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미국 주류사회가 겨냥하는 불량국가들의 불법적 행위는 미국이 그 국가의 정권을 지지할 때 발생한 것이라고

7) 미국 하버드대의 토머스 패터슨 등이 내놓은 '언론의 4유형'으로서, 곧 '감시견(watch dog), 보호견(guard dog), 애완견(lap dog), 공격견(attack dog)'의 네 가지 유형이다. 감시견이 권력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비판과 조언을 하는 언론이라면, 보호견은 지배권력의 방패막이 언론이다. 또 애완견은 정권에 꼬리치는 언론인데 반해 공격견은 정권을 물어뜯어 상업적 이득을 얻는 언론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신문은 감시견이라기보다는 애완견이거나 공격견의 특성을 띠고 있다. 조항제는 "한국 신문들은 독재정권 시절 애완견이었다가, 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권력 엘리트 집단의 균열과 대치를 이용해 공격견으로 변했고, 김대중 정부 들어선 뒤로는 공격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우리 언론의 속성의 변모를 밝히며, 강준만은 "정권과 언론의 권력관계가 1990년대 들어 역전됐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침을 가한다. 미국은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대외정책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은 미국 행정부가 판단하는 국가이익의 유무 및 경중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였고, 결국 해당 국가 민중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권리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유린하였음을 폭로하고 있다. 노암 촘스키(1979)는 미국의 보도 행태가 ‘국가 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필요한 환상(necessary illusion)’이라고 일컬었다.

많은 학자들은 뉴스가치가 가져올 수 있는 해로운 효과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어떤 특정 이슈가 다른 이슈보다 뉴스에 규칙적으로 더 자주 나타나게 된다면 수용자들은 이 이슈를 특별히 중요하다고 믿게 된다. 이 때문에 뉴스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기 보다는 특정한 사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미디어를 통한 사회의 실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Tuchman 1978).

이와 같은 이유로 보수적인 논조를 갖고 있는 신문보도는 보수적인 시각을 통해서 사회를 해석하고 개념을 정의해 나가게 된다. 보수적 이념에 어긋나는 현상은 위험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며 자신의 논조를 정당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진보적인 논조를 갖고 있는 신문의 보도성향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통해 진보 이념에 맞는 사회현상을 구성해 나간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미군의 이라크군 포로학대’에 관한 기사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내용분석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나타난 미군의 포로학대 관련 기사, 사실, 칼럼 등을 구체적으로 원용하여 분석하고, 기사의 논조를 통해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보도의 경향성을 갖는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사실의 논조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사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는 물론, 이들이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어떤 측면을 배제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개념이 바로 프레이밍(framing)인데 미디어가 정책 이슈를 틀 짓는 방식은 수용자들이 그 이슈들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가정으로 삼는다(Entman 1993). 뉴스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뉴스수집 관행이 있다. 취재원으로서의 정부 관료와 기자 사이의 제도적 관계가 갖는 의미를 취재사용 패턴을 통해 분석하는 데에는 뉴스기사가 적절할 수 있으며, 사실은 특정 정책에 대한 신문사 자신의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뉴스기사보다 논조 분석에 더 용이하다.

[연구문제 1] 미군의 이라크군 포로 학대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논조차이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연구문제 2] 양 신문사의 논조의 차이를 통해서 분석하였을 때 합의의 영역에 포함되는 보도 내용과 논의의 영역에 포함되는 보도내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어디서부터 영역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3. 2.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

두 신문사의 보도기사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수집했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기사는 한겨레신문의 경우 2004년 5월 5일자 기사로부터 6월 18일자까지의 기사이다. 조선일보의 경우 2004년 5월 3일자 기사로부터 5월 24일자까지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양 신문사 모두 검색된 내용들을 통합하여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가 이라크군 포로학대가 언론에 발표된 직후이기 때문에 언론사별 논조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라고 여길 수 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이 길어져 언론사별 논조가 불분명해지는 시점까지도 포함되면 분석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료 수집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기사가 중점적으로 보도되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반면 한겨레신문은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라크 포로학대에 대한 이슈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의 이라크 포로학대 관련 검색 기사는 23건, 조선일보의 관련기사는 11건이다.

양 신문사의 논조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보도 기사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뉘앙스를 분석하였다. 뉘앙스의 차이는 양 신문사가 미군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도의 방향이 미군의 행동을 어느 정도로 정당화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기사 내용을 통해서 분석했다. 또한 신문사의 논조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설의 경향을 통해 양 신문사의 이념적인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신문사의 보도에서 드러나는 합의의 영역과 논의의 영역을 파악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도 살펴보았다. 언론사에서 발견되는 일탈의 영역은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과 관련성이 적으므로 분석기준에서 제외하였다.

4. 데이터 분석 및 연구결과

4.1. 제목에 대한 분석

조선일보의 11개 기사와 한겨레신문의 23개 보도기사에 대한 제목 분석 결과 조

선일보의 경우, 미군이나 미국 정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은 ‘미국에 비수 쫓은 미국 언론’, ‘미, 쿠바 관타나모서도 포로 강압신문’, ‘이라크인 분노, 좌절감 극에 달해’ 등 총 11건 중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제목들은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나’와 같이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인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같이 미국인들의 시각에서 이라크 포로학대에 관한 사건을 바라보는 듯한 제목을 사용하였다.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로학대에 대한 제목 뿐 아니라 파병철회에 대한 의견 4건(‘파병 철회, 정부가 결단해야’, ‘파병 약속, 꼭 지켜야 하는가’, ‘그런 곳엔 절대 파병 안돼’, ‘미국서도 명분 잃은 이라크전 우리가 꼭 가야하나’)과 미국 언론에 대한 비판 1건(‘미 언론 신뢰도 위기 심각’), 미국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 6건(‘포로학대가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미 인권 야누스의 얼굴’, ‘미국은 원래부터 그랬다’, ‘무정부적 제국, 미국의 위기’, ‘부시 정권의 파탄’, ‘미국교도소 수감자 학대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방불’)이 실려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를 넘어 외국의 부정적인 반응 1건(‘이탈리아, 호주 등 철군여론 확산’)에 대한 내용과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불만족스런 입장을 표명하는 제목 1건(‘정부 마지못해 이라크 포로학대 유감’)이 제목으로 사용되었다. 총 23개의 기사 제목 중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제목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라는 1건에 불과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미국 사회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며 미국에 약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군의 이라크포로 학대 사건에 대해서 사건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함께 각계각층의 움직임 및 대응책을 중심으로 보도하였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함께 국제적인 비판, 미국의

표 1. 조선일보의 보도기사 제목

미국에 비수 쫓은 미국 언론 (5월 7일자)
미, 쿠바 관타나모서도 포로 강압신문 (5월 10일자)
[포로학대파문]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나-저항운동 격렬해지자 미군도 과격하게 맞대응(5월 10일자)
발 빠른 미의회 청문회 (5월 12일자)
이라크인 분노, 좌절감 극에 달해 (5월 13일자)
미국인 참수 아랍인들 엇갈린 반응 보여 (5월 13일자)
[주한미군 왜 빼나] 이라크 사태 갈수록 악화되자 응급처방 (5월 18일자)
부시 “미군차출 불가피” 노 “한국군 파병 난관 극복중” (5월 18일자)

미국인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 (5월 20일자)
미기업연구소 여론조사분석가 칼린 보먼 (5월 20일자)
부시의 미이라크 정책 지지. 유화책 안돼 (5월 24일자)

제반 시스템에 대한 비난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고유한 논조를 폈다.

표 2. 한겨레신문의 보도기사 제목

포로학대가 미국식 민주주의인가 (5월 5일자)
미 인권 ‘야누스의 얼굴’ (5월 5일자)
미국이 추구하는 힘과 그 속의 민주주의 (5월 9일자)
파병 철회, 정부가 결단해야 (5월 10일자)
미국은 원래부터 그랬다 (5월 12일자)
파병 약속, 꼭 지켜야 하는가 (5월 12일자)
정부 마지못해 “이라크 포로학대 유감” (5월 12일자)
그런 곳엔 절대 파병 안돼 (5월 12일자)
이탈리아, 호주 등 철군여론 확산 (5월 12일자)
아프간미군 포로학대도 만만찮아 (5월 13일자)
주한미군 이라크 이동, 의연히 대처해야 (5월 17일자)
미국 포로학대 꼬집은 중국 인권백서 (5월 24일자)
미국서도 명분 잃은 이라크전, 우리가 꼭 가야하나 (5월 24일자)
미 언론 신뢰도 위기 심각 (5월 27일자)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5월 28일자)
무정부적 제국 미국의 위기 (5월 31일자)
이라크 포로학대 관련 대령 이상 전혀 조사안해 (5월 31일자)
이라크 수감자학대 축소, 은폐 의혹 (5월 31일자)
미 “이라크 위협인물 계속 구금” (6월 7일자)
미국교도소 수감자 학대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방불 (6월 9일자)
동맹실상 제대로 보여줘라 (6월 14일자)
부시 정권의 파탄 (6월 16일자)
여전히 당당한 ‘부시의 입’ (6월 18일자)

4. 2. 사설에 대한 분석

사설은 신문사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자료이다. 특정 정책이나 사건에 대한 신문사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기에 뉴스기사보다 논조나 경향성의 분석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사설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 3>과 같이 일반적인 사설 및 논설, 외부인사의 제언, 특파원 칼럼, 스트레이트 기사로 나누었다.

표 3.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사설, 논설	2건	10건
외부인사 제언	2건 (인터뷰)	5건
특파원 칼럼	4건	3건
스트레이트 기사	5건	10건

조선일보에서는 주관적인 견해가 실려 있는 사설, 논설 및 제언의 숫자가 총 2건으로 한겨레신문의 총 10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라크 포로학대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을 피력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보도만을 통해서 사안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조선일보의 외부인사 제언 2건은 모두 인터뷰인데, 첫 번째는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싱크 탱크인 AEI⁸⁾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해 오고 있는 미국기업 연구소의 여론조사분석가 칼린 보먼과의 인터뷰이다. 인터뷰 내용은 한국인의 반미감정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라크 포로학대 사건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발행인인 캐런 엘리엇 하우스와의 인터뷰인데⁹⁾, 그는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이라크 정책은 기본적으로 옳으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8)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약어. AEI는 미국 부시행정부 내에서 네오콘, 즉 신보수주의자들의 이론적인 근거지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미국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미국기업연구소란 이름으로 정부 역할의 축소와 자유 시장의 옹호 등과 같은 표면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 외교·안보 전략 추구이다. 북한 체제 교체론을 주장하여 논란을 일으켰던 AEI는 북한 관련 보도뿐만 아니라 이라크전의 뉴스 프레임에도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 “WSJ는 부시 대통령을 옹호하고, 존 케리 의원을 비판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그는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WSJ는 자유 시장 경제와 자유 민주주의, 자유 무역을 지지하며 우리와 입장을 달리하면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부시 대통령에게 더 호의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 입장과 부시 행정부 견해가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부시의 대이라크 정책의 타당성을 옹호한 바 있다(2004. 5. 24, <http://www.chosun.com>).

낙관론을 펼쳤다.

반면 한겨레신문의 사설, 논설, 외부인사 제언은 총 10건으로 이라크 포로학대 사건을 바라보는 주관적인 견해를 많이 보도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부시대통령이 이라크 전 대통령 후세인의 권총을 자신의 서재에 전시한 것에 대한 도덕성 비난과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우월적인 지위를 다루었다. 외부인사의 제언으로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매이 케플란 교수의 의견을 실었으며, 부시 행정부의 비인간적인 행적을 ‘무정부적 제국’이라는 비유로 꼬집었다. 특히 ‘미국은 원래부터 그랬다.’라는 다소 공격적인 제목을 통해서 미국이 그동안 필리핀, 아이티 등에서 저지른 참혹한 살육과 잔혹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하며 미국의 행적을 드러냈다.

조선일보의 특과원 칼럼에서는 이라크의 공격에 대한 기대 이하의 성과로 인해 미국이 상처를 입은 상황과 미국언론이 부시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음을 밝혔고 이라크의 언론통제를 함께 언급하였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이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연방의회 청문회의 매끄러운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칼럼을 게재했다. 결국 특과원 칼럼을 통해서 이라크 포로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보다는 부수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부시대통령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도 인권백서를 통해 미국정부와 미군의 포로학대를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과 미국이 대외적으로 표방했던 인권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정부는 인권을 유린하는 이중적인 미국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4. 3. 스트레이트 기사의 내용분석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 수가 5건에 불과하고 한겨레신문은 10건이어서 스트레이트 기사 건수는 두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기사의 기간이 조선일보는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18일 동안이고, 한겨레신문은 5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43일 동안이어서 기사 수집의 기간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표 4.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안별 스트레이트 기사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이라크군 학대 관련	1건	4건
한국정부 관련	1건	2건
미국 비판 관련	1건	3건
기타	2건	1건

조선일보의 이라크군 학대와 관련한 기사 역시 한겨레신문보다 적었다. 다만 조선일보는 이라크 시민들의 간단한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그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미군의 만행을 세계가 비판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시사하고 아랍권 전체의 분노를 기사화하였다. 또 미국정부가 이라크 포로를 학대한 내용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미국정부가 문제 미군에 대한 사건의 진상조사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정부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주한미군의 차출이 불가피하게 된 사실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한겨레신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함께 게재하며 파병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파병은 미국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파병 반대를 위한 정계와 민간단체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미국의 비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미군이 쿠바 관타나모에서 아프간 포로를 학대한 사실을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인용해 기사화했다. 그러나 이런 미군의 행동은 이라크의 승인된 포로심문과 유사하며 이 포로심문기법 중 일부는 국방부 고위층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만 이미 승인된 것이며 국제법과 일치한다는 미국 방부 관리들의 말을 함께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미국의 교도소 수감자 학대가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를 방불케 한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을 가했고,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PRC)’¹⁰⁾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미국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도를 지적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즈의 자기 비판적 사실을 인용하며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이 위기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HRW)’¹¹⁾가 발표한 미군의 아프간 포로 학대사실을 보도함과 동시에 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던 아프간 인질의 말을 인용하였다.

10) The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and the Press, USA.(<http://people-press.org>) Survey Reports, A Year After Iraq War, Mistrust of America in Europe Ever Higher, Muslim Anger Persists, March 16, 2004 참조.

11) Human Rights Watch (<http://www.hrw.org/campaigns/iraq>), Human Rights and Reconstruction 참조.

기타 관련기사로서 조선일보는 미군의 이라크군 포로학대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보도했다. 포로 학대는 미군 자체의 잘못 보다는 정신교육이나 훈련이 덜 된 군인들이 저지른 행동이라는 것과 이라크 내 격렬한 저항운동으로 인한 다소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보도하였다. 또 미국인의 참수사건을 보도하며 아랍 국가들의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이로 인해 아랍 국가들의 미국을 향한 분노가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대목을 보도하였으며 미국 내에서 그려지는 반 아랍계의 반응을 실었다. 한겨레신문의 기타 관련 기사에는 이탈리아와 호주 등 이라크 파병 국가들의 이라크 포로 학대에 대한 비난과 철군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스트레이트 기사 보도의 논조를 분석해 보면 조선일보는 이라크 포로 학대 문제에 대하여 이라크 현지인들의 말을 인용하는 등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한겨레신문은 포로 학대 뿐 아니라 이보다 한층 더 나아가 미군의 포로 학대사건 축소와 은폐 등 좀 더 심층적인 사안까지 보도하며 비난의 논조를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기사와 미국비판 관련 기사 등에서 조선일보는 사실보도에 그치거나 그 원인을 분석하는 기사가 대부분인 반면, 한겨레신문은 사실보도는 물론이고 그와 연관 있는 여타 현안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련 기사를 함께 내보냈다.

4. 4. 합의의 영역

합의의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미국의 외국에서의 포로학대’와 ‘포로학대에 대한 이라크 및 아랍권의 반응’으로 대별해 보았다. 양 신문 모두 포로학대에 대한 사건은 객관적으로 다루면서 상호 합의의 영역도 있었지만, 포로학대를 논의하는 시각은 상이했다.

표 5.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기사의 합의의 영역

미군의 외국에서의 포로학대
○ 조선일보: 미군 쿠바 관타나모에서도 포로 강압신문 (5월 10일자)
○ 한겨레신문: 미군 필리핀, 아이티에서도 대량학살, 미군의 아프간 포로 학대 (5월 12일자)
포로학대에 대한 이라크 및 아랍권의 반응
○ 조선일보: 이라크인의 포로학대에 대한 분노 (5월 3일자)
○ 한겨레신문: 포로학대에 대한 아랍권과 유럽국가의 비난 (5월 22일자)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모두 과거 미군이 외국에서 포로를 학대하거나 반군을 대량 학살했던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다만 조선일보는 사건에 대한 기술과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함께 보도하였고 한겨레신문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미국의 도덕성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

포로학대에 대한 이라크 시민과 아랍권의 반응에 대해서는 두 신문 모두 보도를 하고 있으나, 조선일보는 이라크인의 분노 섞인 반응을 짙막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하였고 한겨레신문은 포로학대의 문제가 아랍권 전체와 유럽에까지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훨씬 심각하다는 논조로 보도하였다. 즉 양 신문사에서 비록 합의의 영역에 속하는 기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각각의 논조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이하게 드러나고 있다.

4. 5. 논의의 영역

논의의 영역과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수집된 기사들은 크게 네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표 6>에서 제시된 것처럼 미국의 언론, 포로학대의 원인, 주한미군과 파병, 미국 내 여론으로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엇갈린 보도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기사의 논의의 영역

조선일보	논의영역	한겨레신문
○ 미국에 비수 쏘은 언론	미국의언론	○ 미언론 신뢰도 위기 심각
○ 일부 미군의 미숙함과 이라크 내 과격해진 저항	포로학대의 원인	○ 미국은 과거에도 대량학살을 저지른 바 있음 ○ 미국의 인권에 대한 이중 잣대 ○ 부시정권의 파탄
○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지연으로 주한미군의 이라크행 ○ 부시의 미군차출 불가피성과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 불변	주한미군과 파병	○ 주한미군 이라크 이동, 의연히 대처 ○ 정부가 파병 철회 결단해야함 ○ 파병 약속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는가 ○ 이라크와 같은 곳에 절대로 파병 불가 ○ 미국서도 명분을 잃은 이라크전에 파병이 꼭 필요한가
○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정책은 옳은 것이며 북한은 위협적인 존재 ○ 반미감정에 대한 부당성과 이라크 포로학대를 하나의 고립된 사건으로 인식	미국내 여론	○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음

미국의 언론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 신문사의 논조가 서로 극명하게 차별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속내는 서로 다르다. 곧 조선일보는 언론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국 행정부의 권위에 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한겨레신문은 미국의 언론들은 절반가량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라크군 포로학대 원인에 대해서 양 신문사의 논조는 엇갈렸다. 조선일보는 미군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일부의 잘못임을 지적하였고 포로학대가 일어나기 위한 이라크군의 빌미 제공을 함께 문제삼았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해서 과거 미국은 이보다 더한 잔혹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며 필리핀과 아이티에서의 대살육 사건을 보도하였고, 미국의 이라크군 포로학대 행위는 미국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인권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특히 이라크 포로에 대한 행위는 일부 군인들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시 정부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주한미군의 이라크 지원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다분히 친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흔들어 놓은 세력으로 인한 한미관계의 변화를 문제삼았다. 또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지원은 한미 간의 관계에서 불거진 일이기보다는 미군의 절박한 상황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감축은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 문제를 두고 정치계와 시민단체 사이의 파병 철회론에 대해서 심도있는 보도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파병원칙 불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라크전은 이미 미국에서도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파병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미국 내 여론분석을 두고도 상반된 논조와 편집방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긍정적인 입장의 인터뷰 기사를 중심부에 다루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정책은 옳은 것이며,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미국의 제국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외부의 제언을 기사로 다루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논의의 영역에서 살펴본다면 조선일보는 다소 온건하며 미국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논조를 띠고 있지만 한겨레신문은 미국 행정부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으며 정책에 대하여 강건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미군의 이라크군 포로 학대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언론의 상징인 조선일보와 진보언론의 상징인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분석하여 이들의 친미성향과 반미성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양 신문사의 논조는 극명히 대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2004년 6월 중순까지도 이라크 포로학대와 결부된 관련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조선일보의 경우 2004년 5월 하순 이후 이라크 포로학대 문제 자체를 다룬 기사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더 나아가 아프간, 미국 내 교도소, 필리핀, 아이티 등 이라크 이외 지역에서의 포로학대와 관련된 사건을 비중있게 보도하며 미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하는 쪽으로 기사를 전개해 나갔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기사의 양이 한겨레신문에 비해 훨씬 적고 기사화되더라도 외신을 짧게 인용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자체를 비판하는 태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또 포로학대 행위로부터 미국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다

소 노골적인 파병 철회 여론조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조선일보의 경우는 적어도 신문사 스스로의 파병 반대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신문 기사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기사의 제목을 통한 분석에서 조선일보는 11건의 기사제목 중에 총 3개만이 미군의 행동과 미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한겨레신문은 23건의 기사제목 중 한 개를 제외한 22개가 부정적이며 직설적인 비난이었다. 신문사의 논조를 대표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설·논설에 있어서 조선일보는 단 한건의 관련 사설이나 논설이 나오지 않았으며, 그 대신 보수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인사 두 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었다. 한겨레신문에는 사설과 논설 그리고 외부인사의 제언까지 모두 10건이 실려 있었다. 이 속에는 과거 미국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부각시키는 내용과 부시 행정부의 이중성과 도덕성을 비난하는 견해가 드러나 있다.

그 외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이라크 현지인들의 분이기를 전하는 내용을 실었으나 한겨레신문은 포로학대 문제가 아랍권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또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정부의 파병계획이 변함없다는 보도를 한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파병 절대 불가의 입장과 그 이유를 다각도로 심도있게 설명하고 있다.

표 7. 양 신문사에서 드러난 ‘합의의 영역’과 ‘논의의 영역’에 대한 분석

매체의 경향성	조선일보의 경향성	공통의 경향성	한겨레신문의 경향성
합의의 영역	단순한 사실보도를 유지함. 편향적인 프레임 보다는 객관적 보도를 유지. 이라크인들의 분노를 스트레이트로 다루며, 쿠바에서의 포로 강압 사건도 곁들임.	미군의 포로 학대 문제에 대한 아랍권의 반응을 다룸. 합의의 영역에서는 공통 경향성이 드러남.	심층취재로 미국정부의 불신과 정책에 대한 비판. 이를 위해 유럽 국가의 비난도 함께 다루며 더 나아가 미군에 의한 필리핀·아이티의 학살 사건까지 보도.
논의의 영역	미군 자체보다는 일부 군인들의 문제, 곧 국지적인 문제로 보도.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의 정책 등 미국 내의 우호적인 여론을 소개.	‘합의의 영역’과 견주어 볼 때, 엇갈린 보도가 많았고 공통 경향성이 결여되어 있음. 상호 극명하게 대립된 구조를 지님.	미국의 총체적인 문제로 부각. 부시 행정부의 도덕성을 질타하며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를 다룸. 이와 함께 이라크 파병문제도 극단적인 반대 논조를 띠.

양 신문사의 합의의 영역은 ‘미군의 외국에서의 포로학대’ 문제와 ‘포로학대에 대한 아랍권의 반응’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사실 보도에 그친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이에 대한 보충 기사와 심층취재를 통해서 미국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책에 대한 불만 등 강력한 논조를 피력하고 있다.

논의의 영역에서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논조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의 언론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은 언론이 신뢰할만하지 못하다는 기사를 실고 있으며 포로학대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미군 시스템 자체보다는 일부 군인들의 문제, 즉 국지적인 문제로 보도하였다. 또한 포로 학대 이전에 이라크 군인들의 저항과 이들에 의한 피해를 논하였고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이를 미국의 총체적인 문제로 몰고 갔으며 개인이나 일부의 사안이 아닌 부시 행정부 도덕성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조선일보는 정부의 의지만을 보도하였고 주한미군의 이라크 지원에 대해서도 한국파병의 지연을 하나의 원인으로 꼽아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

였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파병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대 논조를 띠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전 자체가 이미 미국 내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전쟁이라며 한국정부의 친미적 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 내 여론을 평가하는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인사를 통한 미국 내 분위기를 전달해 미국의 견재함을 나타내도록 하였고, 한겨레신문은 미국의 제반 제도와 오만함을 비난하는 입장의 기고를 다루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여전히 친미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겨레신문은 미국의 정책에 비판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이라크 포로학대 파문이 미국 자체의 내재적이고 근원적인 제국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는 반면, 조선일보는 전쟁과정에서의 우연에 불과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취급하는 논조를 띠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언론으로 규정한 조선일보와 진보언론으로 규정한 한겨레신문이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문제를 보도한 기사를 자료로서 수집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라크 포로 학대문제 발생 직후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양 신문사가 이 사안을 보도한 기사의 양에서도 차이가 많았고 기사를 다루고 있는 시기면에서도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물론 양 신문사가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 달랐고 따라서 사안에 대한 무게중심이 달랐던 것에 따른 차이였으나 이때문에 보다 정교한 분석을 시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을 틀을 마련하고 비교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언론관련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 경향성의 연구 또한 평면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입체적·다각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본고의 제출에 덧붙인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신문지면에서 다뤄지고 있는 기사의 논조 뿐 아니라 낱낱 기사에 대한 인터넷상의 여론을 수집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 언론들의 보도 경향과 국내 언론의 보도 경향과 비교한다면 보다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Chomsky, Norm. 1979. *Necessary illusion: Thought control in democratic societies*. Cambridge, MA: Pluto Press.
- (2) Entman, Robett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4(2): 5-28.
- (3) Gitlin, Todd.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 new lef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4)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Row.

(5) Lichtenberg, J. 1996. "In defence of objectivity". *In Mass media and society*, by Curran, J and M. Gurevitch. London: Arnold. 재인용: 강형철, "신문보도의 주관성과 객관성". 언론과 사회, 26: 113-145.

(6) Tuchman, Gaye.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ur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7) The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and the Press. 2004. USA. <http://people-press.org>

(8) The Human Rights and Reconstruction. 2004. <http://www.hrw.org/campaigns/iraq>

(9) The Wall Street Journal. 2004. <http://online.wsj.com/public/us>

(10) 강준만. 1999. *조선일보 공화국*. 서울: 인물과 사상사.

(11) 미디어의 오늘. 2004. "미 언론 주류 계층 입장 대변". <http://www.mediatoday.co.kr>

(12) 박홍원. 2001. *대북정책과 언론-국가관계*. 서울: 한국언론재단.

(13) 윤영철. 2000. "권력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7: 48-81.

(14) 이준웅. 2000. "프레임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 85-153.

(15) 저널리즘 비평. 1997. "불공정 보도는 권력과 자본에서 비롯된다". 저널리즘 비평, 20: 24-31.

(16) 조선일보 사사편찬실. 2004. *조선일보 역사*. 서울: 조선일보사.

(17) 조선일보. 2004. "부시의 대이라크 정책 지지", WSJ 캐린 하우스 인터뷰(2004. 5 .24.) <http://www.chosun.com>

(18) 조선일보. 2005. "독선의 나라가 된 미국"(2005.12.29) <http://www.chosun.com/editorials>

(19) 한겨레신문 2004. *한겨레신문사의 역사*. <http://www.hani.co.kr>

(20) 한국언론재단. 2001. *보도비평, 신문의 경기동향 보도*. 서울: 한국언론재단.

(21) 한동섭. 2000. *한겨레신문과 미디어 정치경제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